**● 도시의 성장**

<그림> 도시 분포

<그래프> 도시 인구의 증가

대한민국에는 총 85개의 시가 있으며, 이는 광역 지방 자치 단체와 기초 지방 자치 단체로 구분된다. 광역 지방 자치 단체 중에는 6개의 광역시(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1개의 특별시(서울), 1 개의 특별자치시(세종)가 있다. 상위 광역 지방 자치 단체 중 도에 소속된 기초 지방 자치 단체로서의 시는 총 77개인데, 경기도는 28개로 전체 도시의 1/3이 집중되어 있으며, 뒤이어 경상북도에 10개 시, 충청남도와 경상남도에 각각 8개 시가 있다. 광역시에는 기초 자치 단체인 자치구가 있으며, 기초 지방 자치 단체로서의 시는 인구 50만 명 이상일 경우 자치 단체가 아닌 행정 목적의 구를 둘 수 있다. 광역시와 시 모두 가장 작은 행정 단위로 서 동, 읍, 면을 둘 수 있는데, 관습상 동부와 읍부를 도시화된 지역으로 간주한다(54쪽 참고).

지난 60여 년 간 국토 공간 전반에서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도시화의 진전이다. 도시화 지

표로 대표적인 것은 전체 인구 중 도시 지역 거주 인구의 비중을 백분율(%)로 나타낸 도시화율이다. 현재 행정 구역상 동과 읍에서 거주하는 인구는 90% 이상이다. 도시화율 추이를 살펴보면 1980년대까지 급증세를 보이다가 이후 완만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도시화 곡선에서 우리나라가 가속화 단계에서 종착 단계로 접어 들었음을 보여 준다.

도시화는 도시 인구의 증가로 인한 도시 규모 성장과 함께 도시의 수적 증가를 가져왔다. 이와 더불어 도시 인구가 교외로 이동하면서 도시 주변으로 광역화되고 대도시권이 형성되는 면적 성장도 나타났다. 교통의 발달과 거주의 교외화가 진전되면서 도시 외부에서 통근·통학하는 인구가 증가하였고, 생활 공간이 확대되었다.

<그림> 교통망과 도시

<그림> 도시의 성장 (1970-1979년 인구 증가율(%))

<그림> 도시의 성장 (1980-1989년 인구 증가율(%))

<그림> 도시의 성장 (1990-1999년 인구 증가율(%))

<그림> 도시의 성장 (2001-2015년 인구 증가율(%))

**● 도시 인구와 도시 체계**

<그림, 그래프> 도시 인구와 도시 체계

<그림> 권역별 교통량(수도권, 대전•세종권, 광주권, 대구권, 부산•울산권)

우리나라 각 도시의 인구는 서울특별시가 약 1,000만 명으로 가장 많고, 부산광역시가 약 350만 명, 인천광역시가 약 300만 명, 대구광역시가 250만 명 내외이다. 또한 인구 100만 명을 넘는 도시는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와 수원시, 창원시이다.

우리나라의 도시 체계는 서울과 5대 광역시가 고속 철도를 통해 큰 축으로 연결되어 있고, 나머지 도시들이 고속 국도 등을 통해 연결되어 있다. 특히 서울,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도시들의 인구 규모는 상대적으로 큰 편으로, 수도권 편중 현상이 심한 우리나라의 특성을 잘 반영한다. 수도권의 도시들은 환상형의 외곽순환고속국도와 방사형의 경인고속국도, 경부고속국도 등을 통해 연결되어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위성 도시 형태를 띠며, 점차 수도권 남서부가 연담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 이외 지방 도시들은 광역시 및 도청 소재지를 중심으로 작은 규모의 도시들이 산재되어 있는 구조에 가깝다. 특히 부산과 경상남도 도시들을 살펴보면, 남해고속국도를 따라 선형으로 도시들이 연결되어 있다.

<그림> 각 도별 도시 체계

각 도의 시·군 분포와 도청 소재지 등을 통해 해당 도의 특성을 이해 할 수 있다. 특히 도청 소재지는 행정의 중심지로 물리적 접근성뿐만 아니라 균형성이나 상징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경기도는 경기 북부의 시․군은 면적이 상대적으로 큰 반면, 경기 남부의 시․군은 면적이 상대적으로 작다. 도청은 수원시에 소재하는데, 일제 강점기에 수원에서 서울(경성)로 이전되었으나 1967년 수원으로 재 이전하였다. 강원도는 대부분이 산지로 이루어져 영동과 영서 지방에 남북 방향으로 동해고속국도와 중앙고속국도가 지나간다. 도청 소재지는 춘천시이다. 충청북도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바다와 접하지 않은 도로, 자치시는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세 곳이며, 나머지 8곳은 군이다. 도청 소재지는 청주시이다. 충청남도는 도 내 중심지가 부재하고, 동쪽의 대전광역시를 중심으로 도로들이 연결되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다만, 서해안고속국도 개설로 대전 중심성이 다소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 충남도청은 한때 공주에 있었다. 일제 강점기에 경부선과 가까이 배치하기 위해 대전으로 이전되었다. 1989년 대전이 충청남도로부터 분리되면서 재이전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현재 홍성군 홍북읍 내포 신도시에 위치하고 있다. 전라북도는 전주시, 익산시 등 자치시가 주로 도의 북부에 몰려 있고 교통 또한 양호하다. 도청소재지는 전주시이다. 전라남도에는 서해안고속국도와 호남고속국도 등이 지난다. 도청 소재지는 1986년 광주시가 직할시로 승격됨에 따라 전라남도에서 분리되면서 2005년 무안군으로 이전했다. 도청이 서쪽에 치우쳐 있어, 순천시에 동부 청사를 마련하였다. 경상북도는 경부고속국도, 대구포항고속국도 등 광역 교통망이 대구광역시를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다. 도청은 오랫동안 대구에 입지했었다가 최근에 도의 북부에 위치한 안동시로 이전하였다. 1981년

대구시가 직할시로 승격되어 경상북도와 분리되면서 도청 이전과 관련한 논의가 이어졌으며, 2008년 안동시 풍천면, 예천군 호명면 일원이 도청 이전 예정지로 지정 및 공고되었고 2016년 3월 이전이 완료되었다. 경상남도는 부산이 기점인 남북 방향의 경부고속국도, 중앙고속국도, 대구부산고속국도와 동서 방향의 남해고속국도가 있으며, 창원과 경기도 양평을 잇는 중부내륙고속국도, 통영과 대전을 잇는 대전통영고속국도가 지난다. 도청 소재지는 본래 진주에 위치했으나 일제 강점기에 부산으로 옮겨졌다. 광복 이후 진주와 마산이 유치를 경합했으나, 1981년 창원으로 이전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리적으로 중심부에 한라산이 위치하여 모든 행정 부처가 해안가를 따라 입지한다. 도청은 공항 및 항구와 가까운 제주시 북단에 입지하고 있다.

**● 도시의 이모저모**

<그림> 도시 면적 순위

우리나라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자치시, 행정시를 포함한 총 85개 시급 지방 자치

단체의 면적을 살펴보면, 안동시가 1,522km²로 가장 넓고, 경주시 1,325km², 상주시 1,255km² 등 경상북도 및 강원도의 자치시 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난다. 가장 작은 면적을 가진 시는 구리시로 33.3km²이며, 과천시 35.9km², 군포시 36.5km² 등 대체로 경기도권의 도시들이 면적이 작은 경향을 보인다. 이를 인구 규모와 함께 배치하여 보면, 특별시, 광역시를 제외한 나머지 자치시와 행정시는 면적과 인구 규모 사이에 상관 관계가 강하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더구나, 수원시는 100만 명 이상 인구 규모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적은 121km²(71위)에 불과해 인구 규모에 비해서 면적이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인구 밀도

<그림> 생산 가능 인구

<그림> 주간 인구 지수

<그림> 순이동률

<그림> 조출산율

<그림> 조사망률

<그림> 조혼인율

<그림> 조이혼율

<그림> 재정 자립도

<그림> 1인당 지방세 부담액

<그림> 1인당 세입액

<그림> 1인당 세출액

<그림> 1만 명당 공무원 수

<그림> 1만 명당 금융 기관 수

<그림> 1만 명당 시장 수

<그림> 천1 명당 식품 위생 관계 업소

<그림> 호텔 관광 숙박 시설 수

<그림> 1천 명당 사업체 수

<그림> 주택 보급률

<그림> 1인당 건축 연면적

<그림> 도로 포장률

<그림> 1천 명당 자전거 도로 길이

<그림> 1천 명당 교통사고 발생 건수

<그림> 1인당 승용차 등록 대수

<그림>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

<그림> 자동차 1만 대당 교통사고 발생 건수

<그림> 10만 명당 교통사고 부상자 수

<그림> 건강 보험 적용 인구

<그림> 병상 확보율

<그림> 1만 명당 병원 수

<그림> 1만 명당 의사 수

<그림> 감염병 발생률

<그림> 서울특별시의 확장(1394-1913년, 1914-1963년, 1973년, 2005년)

<그림> 대구광역시의 확장

<그림> 광주광역시의 확장

<그림> 울산광역시의 확장

<그림> 부산광역시의 확장

<그림> 인천광역시의 확장

<그림> 대전광역시의 확장

<표> 권역별 시·군·구 수

<표> 시기별 행정 구역 변화

1960년 이후 우리나라의 시기별 행정 구역 개편 현황을 살펴보면 1960 - 1970년대에는 서울과 부산이 인구 증가로 인해 공간적으로 확대됨과 동시에 많은 구가 분리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수도권의 시·군은 인구 증가로 인해 분리되는 경우가 많았다. 1980년대에는 이러한 수도권 시 지역의 증가가 계속되었고, 영남권에서도 시 지역이 본격적으로 증가하였다. 1980년대 도농 분리에 의해 1990년 261개로 늘어났던 시·군·구의 수는 1995년 도농 통합 이후 다시 감소하여 2000년 234개가 되었다.

1980년대에는 대구, 인천, 광주, 대전이 직할시(현, 광역시)로 승격되면서 주변의 시·군이 직할시로 편입되었고, 1997년 울산이 광역시로 승격되었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로 바뀌었고,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가 설치되었다. 과거 광역시에 존재하던 도청은 2016년 경북도청이 대구에서 안동·예천으로 이전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모두 도 지역으로 이전하였다.

<그림> 시·군·구 행정 구역의 변화